

어린이와 함께 한 49년 외길

강 소 천



어 린이를 사랑해 평생을 아동문학에 몰두한 작가 강소천.

지난 5월6일은 그가 삶의 공간을 달리한 지 만 40년이 되는 날이었다. 세상에 남겨진 자들은 그의 이름을 딴 문학상을 벌써 서른 다섯 번 째 주인에게 넘겨주고 있는데 하늘은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고 하루종일 비를 통해 그리워하고 있었다.

강소천(본명 용률)은 함남 고원에서 출생하여 함흥 영생고보를 졸업했으며 해방 후 청진여자고급중학, 청진제일고급중학 등에서 교편생활을 했다.

1930년 소년잡지 아이생활, 신소년 등에 동요 '버드나무 열매' 등을 발표하였고 동요 '민들레와 울아기'가 조선일보 현상 문예에 당선되었다. 그 뒤 '닭'을 비롯한 동요·동시를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문단에 등장하게 된다. 1939년을 전후하여 동화와 아동소설도 쓰기 시작하여 동아일보에 '돌맹이' '토끼 삼형제', 매일신보에 '전등불 이야기' 등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1951년에 월남한 후 소천은 어린이 월간 잡지 '새벗'과 '어린이 다이제스트'의 주간(1952년), 아동문학 편집위원(1962년), 한국보육대학·이화여대·연세대 강사(1959~1963년), 아동

“학교에 가기 전 나는 이름난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물 길러 가신 뒤 부엌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집에 불을 붙인 일, 어머니의 가락지를 들고 나가 우물에 빠뜨리던 일, 병아리가 못 견디게 가지고 장난하다가 할머니한테 매를 맞던 일들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봄이면 민들레와 할미꽃을 트랙에 떠나 옮겨 놓기를 즐겼고 겨울에는 참새 잡이에 추운 줄을 몰랐습니다.”

〈1954년 발행 강소천 소년문학선에서〉

문학연구회 회장(1960년) 등을 역임하며 국내 아동문학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소천은 특히 사랑이 넘치는 동시와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꿈·희망·웃음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대표작으로 ‘호박꽃 초롱’ (박문서관 1941년), ‘꿈을 짚는 사진관’ (소년세계 1954년 3월호) 등이 있다. ‘강소천 문학전집’ 15권을 남긴 소천은 아동문학을 발전시켜온 업적을 인정받아 사후에 금관 문화훈장이 추서됐다.

항일문학 그리고 동요의 자유시화

대부분의 평론가는 소천을 이야기할 때면 반드시 ‘호박꽃 초롱’을 거론한다. ‘호박꽃 초롱’의 역사적 의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호박꽃 초롱’이 출간된 1941년은 일제에 의한 문화말살 정책이 극에 달하던 때였다. 이런 극한의 식민통치 하에서는 모국어로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독립운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글로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치안유지법의 울가미를 쓸 수 있는 암흑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척박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발간된 소천의 ‘호박꽃 초롱’은 일제말기, 한글 아동문학의 명맥을 굳게 지켜온 작품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호박꽃 초롱’에 실린 30여 편의 율문은 정형시로 보이는 작품이 적다. ‘이슬비의 속삭임’, ‘도토리’, ‘버드나무 열매’ 등 단 몇 편만 동요의 요건인 분절 대구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그 외는 거의 자유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평론가들은 동요의 자유시화 흐름에 공헌한 소천의 노력을 간과하지 않는다.

소재로는 잠자리·소 같은 동물이나 호박줄·오동나무 방울 같은 식물을 중심으로 한 자연물이 약 20편, ‘숨바꼭질’ 등 생활 테마가 약 8편이 있으며 그 중에는 ‘달리아’ 처럼 소품도 몇 편 있고 도시에는 어울리지 않는 ‘순이 무덤’ 같은 것도 있다.

특히 ‘호박꽃 초롱’, ‘이슬비의 속삭임’, ‘달밤’, ‘닭’, ‘옛날 얘기’, ‘잠자리’, ‘바람’, ‘조그만 하늘’, ‘겨울’, ‘전등과 얘기 별’ 등은 고전으로 남을 명작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찾아다니며 실천한 어린이문화 운동

소천은 어린이 현장 제정과 어깨동무 학교를 통한 어린이 문



화활동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현장은 1957년 어린이날에 제정, 선포됐다. 이 현장의 제정에 앞서 ‘어린이 현장안’ 초안을 작성, 정부에 건의한 사람이 바로 한국동화작가협회의 소천을 비롯한 김오섭, 마해송, 방기환, 이종환, 임인수, 홍은순 등이다.

1960년 활발하게 진행됐던 어깨동무 학교도 소천의 맘이 많이 배어 있다.

어깨동무 학교는 소외된 지역 학교의 어려움이 신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낙도·벽지 교사들의 특별연수’가 계기가 됐다. 벽지의 비참한 교육현실이 신문에 보도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이를 통해 낙도·벽지학생들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학용품이 전달됐는데, 이를 영속적인 결연 운동으로 만들자는 소천의 주장에 따라 도시학교와 벽지의 학교들이 자매결연을 맺도록 한 것이 어깨동무학교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서울일일신문의 폐간과 함께 새로 들어선 군사정부에 의해 결연 사업을 총괄하는 재건국민운동본부로 이관되었다.

소천은 바쁜 가운데도 라디오 방송에 자주 출연하여 어린이와 국민들에게 친근한 작가로 다가갔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시간 외 퀴즈 올림픽, 재치 문답 등의 방송에서도 재치를 맘껏 발휘, 아동문학가의 이미지를 한껏 제고시켰다.

소천이 작품을 집필하는 가운데도 틈틈이 어린이 글짓기 지도에 힘을 쏟은 이야기는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이대 부속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짚나는 대로 찾아가 지도한 것이나 인천 창여 초등학교를 6개월 동안 보수 없이 찾아가 지도한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아동문학연구회 활동도 있었다. 소천 선생이 회장, 김용욱 청구교 교장이 부회장을 맡았는데, 아동문학 뿐 아니라 교육 및 어린이 문화 전반에 걸쳐 폭넓게 연구하고 행동했다. 당시 공보처에 등록된 유일한 문학단체였는데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어린이의 맘을 지킨 40대 소천

“학교에 가기 전 나는 이름난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물 길러 가신 뒤 부엌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집에 불을 붙인 일, 어머니의 가락지를 들고 나가 우물에 빠뜨리던 일, 병아리가 못 견디게 가지고 장난하다가 할머니한테 매를 맞던 일들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봄이면 민들레와 할미꽃을 따락에 떠나 옮겨 놓기를 즐겼고 겨울에는 참새 잡이에 추운 줄을 몰랐습니다.”
 〈1954년 발행 강소천 소년문학선에서〉

그는 불혹의 나이에 발간된 소년문학선에서 장난꾸러기 시절이 자신의 아동문학세계를 세우는 매우 큰 자양분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 자양분은 세상의 모든 장난꾸러기들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헌신해온 소천의 삶의 에너지였다.

이러한 외골수 같은 소천의 삶은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그를 알고 문학을 함께 논했던 지인들은 그가 어린이 날에 죽을 수 없어서, 마지막까지 남은 힘을 쥐어짜며 어린이날을 보낸 후, 5월6일 새벽에 운명을 달리했다고 믿고 있다.

소천아동문학상

소천아동문학상은 1965년 소천 추모 2주기를 맞아, 아동문학

사에 남긴 소천의 공적을 기리고 아동문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매년 1회 당해 연도에 가장 우수한 작품을 쓴 작가 1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실무는 (주)교학사에서 지원하고 있다.

수상 대상 작품은 추천 기준일(3월1일) 이전 1년 동안에 발표된 아동문학 작품(동요, 동시, 동화, 소년 소설, 동극, 아동문학 평론)이나 작품집(초판본) 중에서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작품들로 하며, 대상자는 등단 10년 이상의 작가들을 원칙으로 한다. 추천위원은 역대 수상자와 운영위원들이 맡고 있으며 35회째를 맞는 올해 수상자로는 동화 '하얀 야생마'의 작가 송재찬 씨가 선정됐다.

송 작가는 1950년 제주에서 출생하여 제주제일고, 제주교육대학, 서울교육대학에서 공부했고 1976년에 동화 '찬란한 믿음'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1980년 작품집 '새는 돌아오지 않았다'로 제7회 한국아동문학상, 1992년 작품집 '유리산 도깨비의 봄나들이'로 제2회 대교문학상, 1996년 장편 동화 '날개를 잃어버린 사람들'로 제16회 이주홍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작은 그림책', '돌아온 진돗개 백구', '무서운 학교 무서운 아이들', '양복 한 벌의 아버지', '이 세상이 아름다운 까닭', '주인 없는 구둣가게', '큰 불 장군과 작은 불 왕자', '아름다운 농부 원경선 이야기', '숲 속의 이상한 샘', '바늘도둑', '골목학교 할머니 선생님' 외 여러 권이 있으며 2003년 현재 서울 면일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조갑준기자〉

